

“대출금리 폭등 막자”...광주은행, 광주신보 금리상한 동참

‘보증부 대출 금리상한’ 협약...5년간 기준금리+2.5~3.0% 제한 금융당국, 취약차주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 금리 상한기준 합리화

시장금리 인상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금융권의 다양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지역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부 대출 가산금리’를 제한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광주은행과 광주신보보증재단은 18일 ‘보증부 대출 금리상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부터 광주은행에서 신규 보증부 대출을 받는 광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일정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의 일상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리상한 적용기간은 기한연장을 포함해 신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이다. 광주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때 전액 보증의 경우 ‘기준금리(MOR·6개월)+2.5% 이내’, 부분보증의 경우는 ‘기준금리(6개월)+3.0% 이내’ 금리상한을 준수하게 된다. 이같은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자금·특례보증이나 근보증 및 기보 중회수보증, 금융기관 출연분 협약보증은 제외해

운용하기로 했다. 광주신보와 금리상한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전액보증 기준금리(6개월)+2.5% 이내, 부분보증 기준금리(6개월)+3.0% 이내 ▲신한은행 전액보증 정기예금(91일)+2.5% 이내, 부분 “+3.0% 이내 ▲우리는 행·중소기업은행 전액 기준금리(3개월)+2.5% 이내, 부분 “+3.0% 이내 ▲광주문화신협·광주신우신협·광주우산신협 전액 정기예탁금 금리+1.5% 이내, 부분 “+1.7% 이내 등 8곳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금리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사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3.9%인 평균 대출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이른다는 말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특성에 맞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한 상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 제도는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상호금융업권 8.5%→10.5% ▲신용카드업 11%→13% ▲신용카드 외 여신전문금융업자 14%→15.5% ▲저축은행 16%→17.5%로 상향이 추진된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금융 사별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취약층 배려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초연금은 주요 생활비...수급자 51.6% 응답 근로 활동·용돈 순 사용...89.3% “생활에 도움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51.6%는 생활비 마련 방법 1순위로 기초연금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는 높았다. 이같은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발표한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자료에 담겼다. 공단은 지난해 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1순위는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순위는 근로 활동(29.8%), 3순위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7.1%)이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을 생활비 마련 방법 1순위로 꼽는 비중은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61.6%로 가장 높았다. 소득 20~40%는 60.0%, 소득 40~70%는 40.1% 등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률은 전체 89.3%였는데, 소득 20% 이하 응답률이 91.1%로 가장 높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1.9%였는데, 소득 40~70% 구간에서 이같은 응답률이 2.8%로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40~70%의 수령액은 지난해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60대 87.0%, 70대 89.3%, 80대 이상 91.45%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았다. 이종희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및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나눔의 기쁨! 함께하는 행복! 사랑의 김치·쌀 나눠요”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는 최근 목포 실내수영장 야외 부지에서 ‘나눔의 기쁨! 함께하는 행복! 사랑의 김치·쌀 나눔 행사’를 열고 목포지역 교령 농업인에게 전달할 전남 쌀(10kg) 200포대와 한국농협김치(4.5kg) 200상자를 전했다. <전남농협 제공>

호남·제주권 대학생 6개팀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20일 지역 예선대회...최우수팀 8월12일 전국대회 출전

호남·제주권 대학생 6개팀이 통화정책 모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실력을 겨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22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 예선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결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예선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대학 6개팀(금린이, 이코모니, STJP, 소몰리에, 금리(金利)빨, 해류뭉헤리)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통화정책 결정 과정을 발표하게 된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 때 서류전형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지역 예선대회 최우수상 수상팀은 오는 8월12일 열리는 전국 결선대회에 진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희망플러스 특례보증한도 1천만원→2천만원으로 상향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등 대상...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우선 운전자금 보증(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증신청일 기준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은행에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추가로 1000만원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이 745점 이상에서 919점 이하인 경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1000만원 보증대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경우다. 중앙회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손실보전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보증한도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는 18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다만 소진공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용한 경우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기금의 사고·대위변제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와 전화(1588-7365)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5.25 (+44.27)
↑ 코스닥	776.72 (+14.33)
↑ 금리(국고채 3년)	3.212 (+0.007)
↓ 환율(USD)	1317.40 (-8.70)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